

Ku:da foundation

모임 꾸다

Definitions from [Oxford Languages](#) · [Learn more](#)



꾸다¹

동사[‘꿈’ 또는 ‘꿈’이 뒤에 오는 합성어나 ‘몽(夢)’이 끝에 오는 한자어와 함께 쓰여]

1. 잠을 자면서 꿈을 의식 속에 가지다.
"꿈을 ~"
2. 미래의 일이나 공상 따위를 머릿속에 그리다.
"터무니없는 꿈을 ~"

꿈 2022

- 1 Ku:da Foundation 모임 꾸다
- 2 지난 꿈들
- 3 꿈, 어디까지 꾀봤니?
- 4 꿈꾸기 일정
- 5 인나면 할일

Ku:Da Foundation 모임 꾸다

Ku:da Foundation – 모임 꾸다 (구. AKK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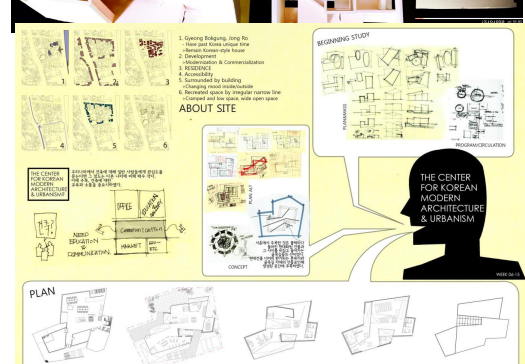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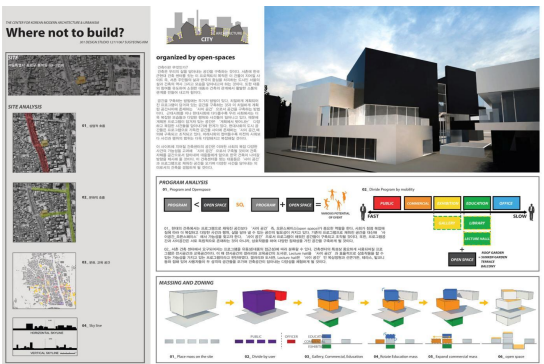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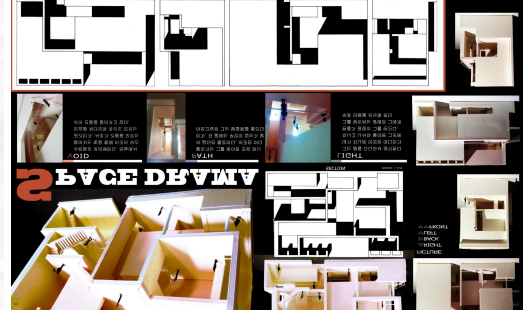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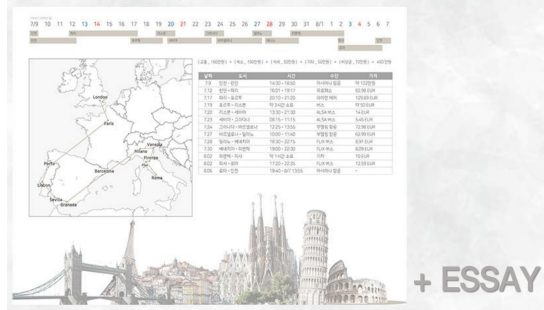
2009년에 모교 지원의 뜻을 같이한 네 명의 동문 모임으로 출발해서 2021년 부터 다섯 명의 회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지난 2013년 제 1회 공모전 ‘Design Studio Traveling Fellowship’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건축학부 학생들을 위해 총 6회의 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AKKY Foundation에서 더 확장성을 가진 모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과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인하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Ku:da Foundation – 모임 꾸다’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꾸다’는 비룡의 비상하는 기상으로 더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꿈을 꾸며 앞으로 내딛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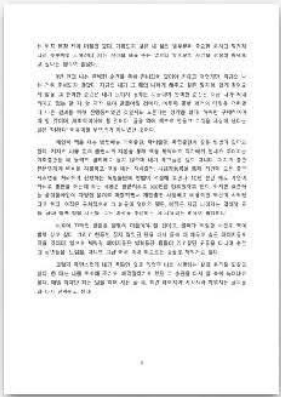
지난 꿈들

~2021년도 이전 제출작



2021년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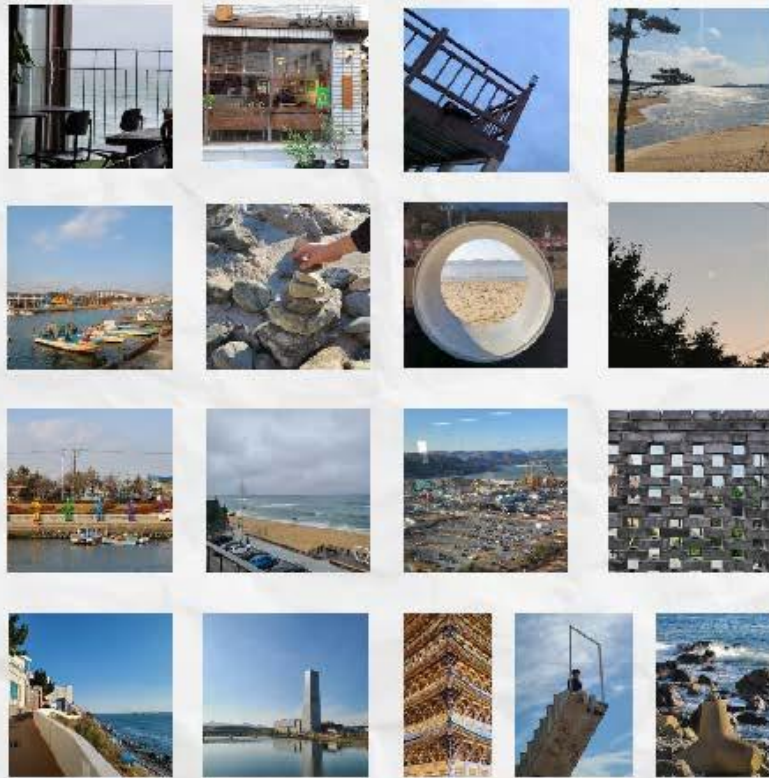
- 정현재



2021년 5월, 우연히 학교 공지를 통해 자기계발 계획 공모전에 대한 소식을 접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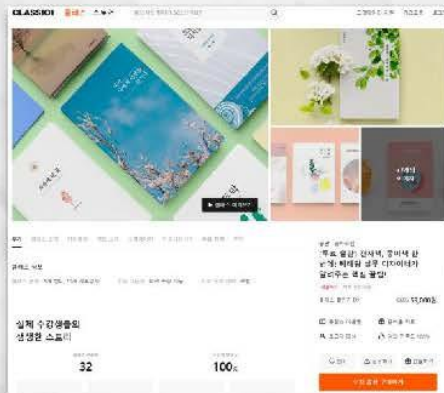


‘건축과 관련이 없어도 된다’는 말에 이끌려
‘나만의 책 만들기’를 주제로 에세이 3장을 채웠고,
공모전에 당선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에세이 출간 계획을 세운 뒤,
전국을 다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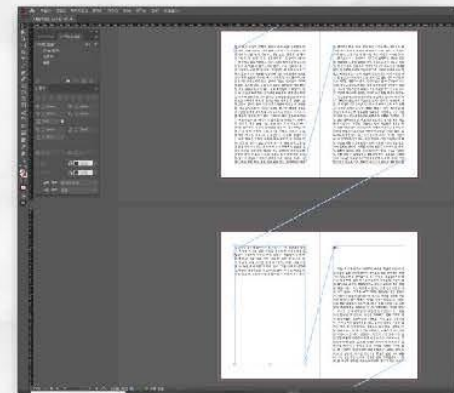
클래스101 단행본 디자인 클래스



글engo 글쓰기 교육/출판경험



단행본 편집 과정



단순히 취미로 써오던 글이었지만 출판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지원금을 통해 글쓰기 교육, 단행본 디자인 및 편집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 1년간의 집필과 퇴고 끝에
집필부터 편집, 디자인, 도서등록 등 단행본 출판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계획했던 내용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훈자서는 절대 이루지 못할 목표였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신 kuda foundation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특별상

- 부유진

국내건축기행



출판 1일차

함양 진입

심장은 격정만으로 앞으로 돌았다. 교통이 혼잡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난 육로 운전을 선택했다. 선비마을을어서서 그러면 팔랑 동계에도 만장 그 모험사를 드러내고 있었다.

날이 출제 19에 다른 차가 앞서서 속도를 줄이면서 뾰족하게 시선을 뚫어 가리키었다. 이미 팔랑으로 오는 길부터 머뭇머뭇하게 시선이 앞쪽만 팔랑 동계에도 마주하는 순간 전복 시선을 밀리는 것 같았다.



이항포화치

눈을 사로잡는 무언가

수많은 문, 다른 사람들이 명했다고 하는 원소를 중심으로 계획을 다시 움직여야 했다.

현소에도 두 계획을 세울 일을 맡기더니 나미라와 호트키스는 남다른 존경 기분이 만물하지만 그 후락 없이 또한 태대까지 조금씩 아구나다 시작했다. 그래서 다 계획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이런 내 모습을 자책하는 것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원점을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인생을 즐기면 배우고 싶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illegible]

작업고일어

건축생각

권속력과 욕망은 어떻게 얽혀 있다 보나,

남해에서 초창기 때로 보아서 다이나믹을 얻는 데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다이나믹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에서 다이나믹화되었던 때와는 사뭇 다른 조건과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다이나믹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때부터는 다이나믹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는 다이나믹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는 다이나믹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2-2000

시간여행

국가적시대는 문명에 대해서 그 시간, 문명적, 나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사천 정경에 담아주고 있다. 다시해도 좋은 사천 문명을 건넌다. 복 문명은 그쪽 아니이다.

정말의 내로고 일과가을을 통해만 이루어지는 내 가는 길 지어지고 이따금씩의 장광이 적혀서 그림자만 보인다

우물쭈물 정서를 하고 있는 문명이 조금 미약하지만 한층 높은 정신을 통하여 지혜와 리듬에 걸맞은 뜻을 얻고있다

우물쭈물 정서를 하고 있는 문명이 조금 미약하지만 한층 높은 정신을 통하여 지혜와 리듬에 걸맞은 뜻을 얻고있다





위대한 일을 위해서 대단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순간순간의 작은 도전이 모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간다.

모션코치



<https://nungil.creatorlink.net/>

우리는 국제연합이 1945년 10월 24일 공식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같은 시점, 같은 장소로 표현하기도, 개인이나 사회는 시대를 뛰어넘는 것만이 인정된다. 만국보통연합은 그 자체로 영속적인 시금, 지구의 북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공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완전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완전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완전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

색

공간감

입구성



경상남도 함양군

[]

색

공간감

입구성

서울특별시



nungil

공간 · 색 · 입구 · 입구성 · 입구성

Space scene

본관은 '색'이라는 키워드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다. 공간 색은 공간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본관은 본관과 그 외곽에 있는 건물 -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본관은 본관과 그 외곽에 있는 건물 -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본관은 본관과 그 외곽에 있는 건물 -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색] 개성을 더하다

본관은 '색'이라는 키워드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다. 공간 색은 공간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본관은 본관과 그 외곽에 있는 건물 -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본관은 본관과 그 외곽에 있는 건물 -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공간감] 스케일에 압도되다

본관에서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본관은 본관과 그 외곽에 있는 건물 -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본관은 본관과 그 외곽에 있는 건물 -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입구성] 기억에 들어간다

본관에서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본관은 본관과 그 외곽에 있는 건물 -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본관은 본관과 그 외곽에 있는 건물 - 본관 벽에 있는 벽에 색채가 바뀌면 공간 분위기도 달라진다.



남계서원 입구

자세히 보기



남계서원

자세히 보기



화려한 처마

자세히 보기



이씨고가

자세히 보기



동호정

자세히 보기



동호정

자세히 보기



동호정에서 본 풍경

자세히 보기



동호정

자세히 보기



농월정 앞

자세히 보기



농월정

자세히 보기



농월정에서 바라본 풍경

자세히 보기



바위 위 농월정

자세히 보기



거연정

자세히 보기



남사에담촌

자세히 보기



광한루

자세히 보기



지리산 노고단

자세히 보기



지리산 노고단

자세히 보기



지리산 노고단

자세히 보기



이 사이트는 크리에이티브크로
제작되었습니다.

꿈, 어디까지 꾀봤니?

합격자 발표날의 그 꿈을 기억하나요?

아직도 같은 꿈으로 밤을 새나요?

요즘은 다른 꿈들을 꾸고 있나요?

아침에 꿈이 기억이 안나나요?

아니면... 꿈꾼지 좀 됐나요?

꿈 꾸기도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꿈은 아닌것 같은 시간도 분명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꿈을 얘기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 건축 전공 후배들에게 꿈을 향한 한걸음을 응원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 해도 범주없는 꿈이루기 장학금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을 A4용지 세 장에 글로 남겨주세요.

리포트 / 일기 / 수필 / 편지 / 시집 / 반성문 / 해몽기 다 좋습니다.

한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 꿈이면 좋습니다.

꿈을 꾸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꿈꾸기 일정

- 공개질의 & 참가의사 접수

2022년 9월 11일 일요일 오전 11:30 (한국시간)

Zoom meeting

Meeting ID: 826 4678 5277

Passcode: 9zH6Fe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공학에 재학중인 학부 / 대학원 전학년 대상
뉴욕 현지에 있는 꾸다 회원들과 전년도 수상자와 함께 화상통화로 공개 질의 후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으로 참가의사 등록

- 글 제출

2022년 10월 9일 일요일 정오 마감 (한국시간)

내용: 그림없고 언어제한 없는 오직 글
분량: A4 용지 세장, 글자 크기: 11, 글자 간격: 1 (single)
파일 제목: 학번_이름.PDF
이메일 제출: kuda.foundation@gmail.com

- 선정후보 3인 면접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정오 (한국시간) 선정후보 3인 선정발표

4주간 구체적 계획 발표 준비: 형식 제한 없음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오전 11:30 (한국시간) 후보 3인 화상 면접

- 최종 수상자 발표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정오 (한국시간)

인나면 할 일

- 장학꿈

최종 수상자 1인 - 미화 \$3,000 지급

(단, 심사 결과가 동률일 경우 최종 선정 2인에게 각각 미화 \$1,500 지급)

- 꿈 사세요

모임 꾸다는 수상자(들)이 단꿈에 너무 깊게 잠들지 않도록 한달에 한번 살짝씩 흔들어 깨울 예정입니다. 최종 수상자(들)은 매월 일정한 형식으로 꾸다 회원들에게 꿈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Facebook, Instagram, Youtube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꿈을 팔아주세요.

모임 꾸다는 내년에 깎 꿈(들)을 위해 또 한 해 열심히 여기 저기서 돈을 꾸고 있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udaFoundation>